

세월호 10년...남겨진 사람들의 모습을 담다

영화 '목화솜 피는 날'

광주서 기자간담회 진행
신경수 감독·조희봉 배우 등
영화 최초 '선체 내부' 담아
안산·진도·목포서 주요 촬영



드리아 용봉점 (참석: 신경수 감독, 조희봉 배우)

“곳곳이 부식돼 구멍이 뚫려 있고 녹이 슬어버린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10년의 세월을 보낸 유가족들의 심정 같았어요.”

세월호 참사와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영화 '목화솜 피는 날'에는 실제 세월호 선체 내부가 한 장면으로 나온다. 극 중에서 세월호 참사로 딸을 잃고 기억마저 잃어가는 주인공 '병호(박원상 배우 역)'는 불가항력적인 힘에 이끌려 딸의 마지막 자취가 남아있는 세월호 안으로 향한다. 자신의 이름조차 잊어가는 그는 딸 '경은'이 누워있었을 바로 그 자리에 누워 딸의 이름을 되뇌며 울부짖는다.

영화를 만든 신경수 감독은 30일 광주 북구 한 카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년 전 세월호 선체를 배경으로 영화를 찍어줄 수 있겠냐고 영화 연출을 제안받았다”며 “누군가는 세월호 선체를 기록하

실, 기계실 등이 배경으로 나온다. 신 감독은 “세월호 선체를 촬영으로 마주했을 때 홀로 외롭게 서있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실제 가까이서 선체를 바라보니, 선체 곳곳 따개비와 같은 바다생물들이 붙어있었고, 인양과 직립과정에서 입혀진 찢겨진 상처를 바라보니 참담했다”며 “그런데 선체 내부로 들어가 보니,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너무도 비현실적인 감각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어민정기성 역의 조희봉 배우는 “진도에 사는 평범한 어민 역을 맡았다. 처음 세월호 사고를 접하고 그저 가라앉은 배에 바다가 상하지 않을까 걱정하다 곧이어 정정보도 소식에 탄식하는 소시민 역할이다. 세월호 참사를 함께 목격했던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배경이다”며 “세월호 참사가 주는 슬픔이 온전히 유가족의 몫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 또한 그동안 세월호 참사를 관망해오지는 않았는지 반성하며 영화에 임했다”고 말했다.

‘목화솜 피는 날’은 10년 전 사고로 죽은 딸과 함께 사라진 기억과 멈춘 세월을 되찾기 위해 나

영화는 박원상, 우미화, 최덕문, 조희봉 등 경력 25년 이상 베테랑 배우들의 흡인력 있는 열연과 함께 세월호 참사 가족 극단 ‘노란리본’ 어머니들이 참여해 진정성을 더했다. SBS 드라마 ‘소방서 옆 경찰서’, 그리고 ‘국과수’, ‘소방서 옆 경찰서’, ‘녹두꽃’, ‘육룡이 나르샤’ 등을 연출한 신경수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으며, 연극 ‘아들에게’, ‘금성여인숙’, ‘말뚝의 눈물’ 등 주로 사회 약자를 다룬 작품을 써온 구두리 작가가 각본에 참여했다.

오는 월 2일 오후 7시 광주극장 출연배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목화솜 피는 날’의 GV가 이어진다.

글·사진=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ACC가 지난 28일 일본 야마구치 정보예술센터와 융복합 콘텐츠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다이아아이다 YCAM 예술감독, 이강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ACC·일본 YCAM, '미래 운동회' 준비 본격 시동

내년 개관 10주년 시민 참여 행사 미디어 아트·스포츠 기술 융합 등

융·복합 예술을 선도하는 한국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일본의 야마구치 정보 예술센터가 함께 'ACC 미래 운동회' 개최를 위한 시동을 걸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지난 28일 ACC 회의실에서 일본 야마구치 정보 예술센터(Yamaguchi Center for Arts and Media, 이하 YCAM)와 융·복합 콘텐츠 공동 연구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ACC는 오는 2025년 개관 10주년을 맞아 'ACC 미래 운동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지난해부터 YCAM과의 협약을 추진해왔다.

이날 협약식에는 ACC 이강현 전당장을 비롯해 YCAM 다이아아이다 예술 감독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ACC 미래 운동회' 콘텐츠 공동 연구개발 및 개최 △문화예술분야 우수 전시, 상영, 공연 등의 교류 △기타 양측의 설립 취지에 맞는 공동프로그램 개발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YCAM은 내년 문화전당에서 개최되는 'ACC 미래 운동

회'의 협력기관으로 참여하게 되며 다양한 신체운동과 미디어 아트를 융합한 새로운 시민 참여 스포츠 행사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ACC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의 '미래 운동회'에서 더욱 미래적이고 창의적인 스포츠 놀이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03년 일본 야마구치에 개관한 YCAM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미디어센터로 세계적인 예술가들과 함께 예술과 과학기술을 활용한 다채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해 전시, 공연, 영화, 워크숍 등의 형태로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작곡한 음악가 사카모토 류이치의 마지막 전시도 YCAM과 함께 기획해 제작한 바 있다. YCAM의 대표 프로젝트인 '미래 운동회'는 미디어 아트와 스포츠 기술의 융·복합 프로그램으로 2015년부터 매년 개최해오면서 지역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이강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ACC의 10주년 프로그램이 더욱 풍성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ACC가 지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지역 사회에서 더 사랑받고 문화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엄마와 딸' '여성 운동가' 그녀들의 삶

광주여성가족재단 허스토리 기획전 7월 25일까지 '엄마의 꿈-딸의 바람' 9월 6일까지 '서서평·김필레·현덕신'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재단 건물 3층 여성전시관 허스토리(Herstory)에서 두 개의 기획전시를 동시에 진행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먼저 7월 25일까지 제7회 허스토리 기획전시 공모전 수상작 '엄마의 꿈-딸의 바람'이 이어지고 9월 6일까지 서서평 90주기를 기념하는 '광주여성길 : 서서평, 김필레, 현덕신이 만든 광주역사'전이 열린다.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여성주의 관련 문화예술 콘텐츠를 발굴하고, 작가 및 기획자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허스토리 기획전시 공모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엄마의 꿈-딸의 바람'에는 류미숙 작가가 참여했다. 류 작가의 어머니가 50여 년간 식당을 운영하며 썼던 그릇을 캔버스에 삼아, 그릇에 담긴 영



광주여성가족재단 기획전시 '엄마의 꿈-딸의 바람' 포스터.

마의 이야기를 하나씩 깎아 담았다. 일 때 문에 하지 못했던 엄마의 꿈을 작품으로 표현한 것.

기획전시 '광주여성길 : 서서평, 김필

레, 현덕신이 만든 '광주역사'는 광주여성길 관련 콘텐츠다. 광주여성길이란 '광주여성사'의 근·현대 광주여성 문화유산인 광주여성사를 중심으로 한 사건, 공간, 인물들을 집중 조명하고 여성인물의 삶의 궤적을 통합하는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여성역사문화 자원화한 도보 프로그램이다. 이 길은 두릅길과 백단심길, 흥단심길 등 총 3개 코스로 구성돼 있다.

전시는 광주 근대여성교육의 역사를 중심으로 한 '두릅길' 인물 서서평, 광주여성 독립운동을 중심으로 한 '백단심길' 인물 김필레, 광주학생독립운동과 총장로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흥단심길' 인물 현덕신을 비롯해 잘 알려지지 않은 광주여성사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다.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전시 관람이 어려운 관객들을 위해 전시장 촬영 영상을 재단 유튜브 및 온라인전시관(재단 홈페이지)에 공유하고 있다. 전시 관람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도선인 기자

'판소리 춘향가' '이태백류 아쟁산조' 매력에 퐁당

내달 1일 광주 동구 전통문화관 청년 국악인 주현주·박정진 출연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오는 6월 1일 오후 3시 여덟 번째 토요일상설공연으로 판소리·산조 무대를 선보인다. 이날 동구 운림동 무등산 자락 아래 있는 전통문화관 일대에서 청년 국악인 주현주는 춘향가 판소리 무대를, 박정진은 산조 무대를 펼친다.

이날 공연 첫 무대는 주현주씨의 판소리 '춘향가' 중 '들었던 촛불을 대목부터 여사출도 대목'이다. 춘향가는 남원부사 아들 몽룡이 되기 월매의 딸 춘향과 사랑

하는 이야기를 판소리로 풀어낸 작품이다. 광주·전남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청년 국악인 주현주는 옛 소리의 맛을 그대로 표현하고 생동감 넘치는 특유의 멋을 보이며 관객들을 매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무대를 여는 이태백류 아쟁산조는 박종선, 김일규의 영향을 받아 이태백의 창작 가락과 어우러져 만들어진 장르다. 이날 산조 연주자로 나선 박정진은 전남남도 무형문화재 제18호 진도북놀이 보유자 고 박관용 선생의 손자로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 졸업 및 동 대학원을 수료했으

며 광양시립국악단원을 역임했다. 현재는 한국 국악연구소장 등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이번 무대 장단은 조가완씨가 장구를 맡는다.

한편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전통문화관에서는 토·토·전(토요일, 토요일은 전통문화관에서 놀자!)이라는 슬로건으로 연희·민속놀이, 한복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전통문화관에서 체험과 공연 등을 모두 즐긴 후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면, 다회용 타월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이어 6월 8일에는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창극프로젝트 소리치다가 '감성콘서트 우공이산'이라는 주제로 흥그래, 뽕덕, 토끼수난시대, 인당수, 사랑, 얼씨구 등 공연을 개최한다.

도선인 기자